◇…재야운동 세력의 실태와 전망

새로운 야권통합 모색 '새시대 광장'

장 일 순
〈사회대 교수·사회학〉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엄밀한 의미의 재야운동 세력은 설 자리를 잃었음은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과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 지도자들은 한때는 거의 매일같이 매스컴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졌고 특히 일부 젊은 대학생들 및 비판적 지식인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와 동정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암울했던 70년대, 80년대의 군사권위주의 시대에 용기가 없어 그저 침묵으로만 관망하던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갖은 고문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함으로써 오늘의 문민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정도 인정을 해야 되리라 본다.

물론 그동안의 재야운동 세력은 여러 운동목표와 이데올로기를 내걸고 CD, ND, PD 등의 이념논쟁과 계파간의 경쟁 및 갈등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와같은 이념논쟁과 계파가 생기게 한 근원적인 배경은 군사권위주의 체제의 비민주적인 통치에 처해 수많은 다수의 민중들이 소외되고, 억압받고, 피해를 받음으로써 이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 역시 최종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 쟁취로써 집약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여러 수많은 재야운동 세력이 추구했던 일차적 목표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오늘날 그동안 재야운동 세력이 추구했던 그들의 운동목표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그동안 재야운동의 중추역할을 해오던 인사들이 지난 4월 13일 정책협의체 성격의 '새시대 광장(가칭)'을 결성하여 정치권에 새바람을 예고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인사들은, 지난 87년 대선에서 후보단일화, 비판적 지지, 독자후보 등 여러 그룹으로 나뉜 뒤 제도 정치와 재야운동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평민연의 임채정 의원, 민련의 이부영 의원, 한겨레당의 제정구 의원, 민중당의 장기표씨, 국민회의의 김근태씨, 전국연합의 이창복씨 등으로서 이들 6명의 '단합선언'은 일단 외형상으로 기존의 중추적인 재야세력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학생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 진출한 제1세대 인사들로서 우리에게는 너무도 잘 알려진 재야운동가라 할 수 있고 여기에다 앞으로 재야원로급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을 고문으로 추대하거나 함께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 하니 이 모임은 명실공히 앞으로 재야운동 세력을 대표하여 기존 정치권의 세력 판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뒤 여러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과거의 재야운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혁, 특히 정치권의 개혁에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그동안 군사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투쟁을 해왔던 과격한 방법은 오늘날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에 합리주의와 대화를 통한 개혁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실명제실시라든가 군의 개혁이라든가 각 분야의 비리척결이라든가 4·19, 5·16, 5·18, 12·12 등의 재규명 등 어느정도는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목적과 배경에서 이러한 재야운동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것일까에 관심의 초점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들 각자가 처한 현재의 위치와 과거에 벌였던 재야운동의성격이 어느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우선 첫째로 들수 있는 것은 어쨌든 오늘의 김영삼 정부를 비판적으로 봄으로써 차기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자당이 계속 집권하는 것을 저지 해야 함에 대해서 어느정도 암묵적으로 서로 일치할 것이라 본다. 오늘날 김영삼 정권이 물론 여러면에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민자당의 당원 구성에 있어서 아직도 5공, 6공의 막강한 군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진보세력으로서의 이들 재야운동 세력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차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들 보수세력과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서서히 그들의 운동세력을 결집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리라 본다.

둘째로는 오늘날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차기의 선거에서 정권을 담당할만한 능력과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본다. 재야운동 세력이나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믿음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시대 광장의 재야운동 세력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젊은 진보세력을 결집시켜 민주당과 힘을 모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수도 있다. 민주당내에는 아직도 과거 5공, 6공 당시 재야운동에서 함께 활동하던 젊은 인사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들과 함께 연대하여 힘을 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셋째로는 오늘날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사회분위기는 신보수화의 경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재야출신인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분열을 사과하고 여러 재야운동 세력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김문수씨의 민자당 입당을 계기로 재야운동 세력의 '변절'시비 등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꼈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와같은 여러 배경에 의해서 이들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결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들은 기구의 성격을 다소 느슨한 일종의 포럼으로 조심스럽게 출범시키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의 재야운동 세력과 신사회운동 세력이 힘을 합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을 결성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제는 그동안 재야운동의 중추역할을 해오던 인사들이 최근에 결성한 '새시대 광장'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들은 과거 학생운동을 주도해 왔고 암울했던 70년대, 80년대 민족·민주 사회운동을 주도해 왔으며 우리사회의 진보세력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이다. 87년 대선에서의 심패후 한동안 침묵을 지켜왔고 김영삼 정부 출범후에도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었던 재야운동 세력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일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정치권에서도 여지 많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들이 말한대로 그들은 각종 현안을 이슈화 하면서 국민들에게 종전의 재야운동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재야운동 세력의 단합된 모습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장기표씨가 재야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력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은 결코 과거의 재야운동 세력이 갖고 있었던 과격하고 경직된 사고와 이념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보수화' 경향의 사회분위기는 재야세력에게 위기감으로 작용.

그에 의하면 현정부가 한계는 있지만 지금은 군사통치 종식이라는 첫째목표가 달성되어 룰을 가지고 공정한 게임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재야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와 평화를 보장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인터뷰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재야운동 세력들은 앞으로 서서히 제도권안에서 그들의 정치적 포부를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와같은 재야운동 세력이 빈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김영삼 정권은 이에 상응한 정치환경을 적절히 조성해 나갈 수 있어야 되리라 본다.

◇야권통합의 서곡이라 할 수 있는 '새시대 광장'이 지난 4월 출범하였다. 이 모임은 앞으로 재야운동 세력을 대표하여 기존 정치권의 세력판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민족·민주 사회운동 이끈 주도세력
기존 정치권 세력판도에 변수로 작용 할듯
경직된 이념탈피 통한 제도권 진입 시도

◇특별기고…교육정책의 제문제

교수·학생 주인되는 대학 민주화 이뤄야

대학의 주체인 교수나 학생들이 주인으로 나서지 않는 한 대학민주화는 허구에 불과하다. 교수채용시 공개강의로 교수와 학생들이 평가하도록 해야한다. 즉 인사행정에 교수와 학생들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예산공개로 교수학생이 학교재정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는 사립재단과 정부가 대학의 주체로 되어있다. 교수임면권도 법적으로 그들에게 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임용제도는 교수와 법관들에게 존재한다. 교수도 힘이 없고 법관도 힘이 없다. 법무공무원인 검찰은 더욱 힘이 없다. 법관은 10년임기로 재임용한다.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다. 사회적정의는 더욱 없다. 판·검사는 권력의 시녀로서 지배자의 권력을 정당화 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법원에도 정의가 없다는 것을 안것은 최근의 일이다.

대학에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을 때에는 참여를 통한 자주관리 특히 소유에 참여 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과 소유가 분리 되었을 때에는 더욱 소유에 참여 해야 주체로 나설 수가 있다.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은 주체가 아니다.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들러리에 불과하다.

캐인즈 이론은 자본주의에 사회주의 요소가 도입된 것이다. 자본주의 가치관 안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판명된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 계획적 시장경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학을 주식회사로 보면 대학건물은 공장건물이고 교수는 기계이다. 거기에서 교육이라는 상품이 나온다. 학생은 주주이다. 정당은 이념의 결사체이다. 노동계급의 정치참여와 민중의 정치참여는 어느 당이 말고 있는가.

대학사회는 정치사회와 상호작용한다. 교육문제만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사회와 관련되어 보아야 한다. 1990년 3월16일 국회의원 김인곤과 사립대이사장 유상근이 주도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악되었다. 교수재임용기간이 없어지고 총장에게 있던 교수임면권이 재단이사회로 넘어갔다. 전임교수 시간강사따로 없이 대학의 모든 교수가 전부 시간 강사가 되어있다. 전임도 6개월마다 재임용할 수 있다. 정관만 뜯어 고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관으로 기간을 정하기 만하면 된다. 총장직선만으로는 대학민주화가 전혀 불가능하다. 교수임면권은 대학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에게로 되돌아와야한다. 사립학교법 66조2항에는 재정계조항까지 있다. 법원의 복직 판결위에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교육풍토이다. 그래서 교수는 한낱 지식을 파는 장사꾼으로 전락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스승의 위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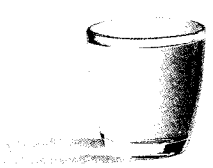
우리의 사정은 어떤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입법권과 예산, 결산권이 지방의회에 분담되어 있다. 교육의 전문성 결여가 불 보듯이 뻔하다. 즉 교육자치가 일반행정에 예속되어 있다.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교육위원회의 선출방법이 주민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다. 부 교육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현직교사들의 교육위원 자격제한으로 교육의 전문성이 전혀 불가능 하다. 스승의 날 꽃 몇개 달아준다고 해서 땡에 떨어진 교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교육학자 라이머는 'School is Dead'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학교는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학교는 국가에 봉사하는 자질을 길들인다.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진인적인 인간으로 키워준다는 본래의 사명을 상실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회것은 희고 검은것은 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참교육이다. 현재는 참교육이 불가능 하다. 참교육 하면 목이 잘린다. 대학의 자율, 학문과 양심의 자유, 옳은일이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학문적 지조가 있어야 참교육이다. 교수들도 긴 침묵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적 모순을 타파해야한다. 교수재임용제는 철폐해야한다. 해직교수협의회는 복직교수협의회로 되어야 가능하다.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외치다가 목이 달아난 해직교수들의 목이 다시 붙여지지 않는 한 참교육이나 교육개혁은 허구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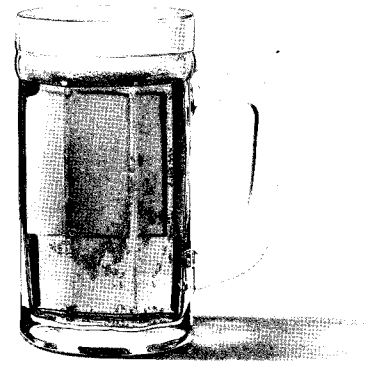
김 경 식
〈본교감사·행정학〉

소주세대와 맥주세대간의 거리를 좁히자!



청년중역회의와 중역현장체험제도를
통해 세대간의 조화를 이뤄가는 「현대자동차」

"하루에 한번씩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자."
– 여기서 출발한 것이 바로 '청년중역회의
(일명 주니어보드)' 와 '중역현장체험제도' 였습니다.
대리들이나 사원들이 직접 중역의 입장이 되어,
의견을 기탄없이 쏟아낼 수 있게 되었고, 이 안건들은
빠짐없이 사장님에게 전달되어 현실 가능한 것들은
직접 반영되기도 하죠.
반대로, 중역들은 20년전 사원의 자리로 되돌아가
생산현장에서 직접 일해보기도 하고, 각 부서들의
말단 자리에 앉아 그들의 고충을 직접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입니다.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지있게 받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